

##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지역인재 채용 전국 하위권

최근 3년 평균 실적 16.3% ... 전국 평균 16.9% 밀돌아  
광주시·전남도, 채용 협의체 구성 ... 설명회 등 적극 나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전국 혁신도시 중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와 전남도 등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채용설명회를 여는 등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혁신도시를 나누어 건설하고, 공공기관이 옮겨오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지역 인재들이 이전기관에 채용되고 관련 기업들이 광주·전남으로 이주하는 등 혁신도시 효과가 지역 곳곳으로 퍼질 수 있도록 실적을 거두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환경KDN 분사 3층 회의장에서 제8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동과제 3건'을 확정하고, 제4대 공동협의회장인 이용섭 광주시장과 박성철 한전KDN 사장의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제5대 공동협의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19년도 공동과제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각 기관별 입장권 단체 구매를 비롯한 후원 참여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30%까지 늘어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추진을 비롯한 혁신도시 사회공헌 활동 협력 추진 등을 공동과제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부분은 올해 목표한 30%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을 독려할 방침이다.

빛가람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별 최근 3년 평균 지역인재 채용 실적은 16.3%에 머물고 있어 전국 평균인 16.9%를 밀돌았다.

협의회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 및 채용비율 증가 혜택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한다. 이 협의체는 25명 내외로 구성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채용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협의회는 오는 4월 4일로 예정된 2019년 합동채용 설명회에 이전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인재들에게 양질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상·하반기로 나눠 지역 대학생 대상 이전공공기관 탐방 프로그램 운영, 오픈캠퍼스 확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지역융화사업과 사회공헌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지역발전 견인을 목표로 세부 사업계획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빛가람혁신도시공공기관장협의회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정주여건을 조기에 완성하고,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등 산업협력 분야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에 구성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 망언' 상처 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대통령 "5·18 망언에 분노 느껴" 참석자들 "우리는 괴물집단 아니다"

문대통령 - 5·18 광주 원로들 청와대 오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광주지역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5·18 민주화운동의 위대한 역사를 왜곡·편향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진상규명은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 역사에 대한 편향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파문을 거론하며 직접 비판한 것은 지난 18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는 국민적·법적 판단을 받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훼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거듭된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광주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에도 5·18 역사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보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며 "상처받은 5·18 영령과 희생자, 광주 시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직후 5·18 기념식에 참석해 5·18에 대한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했다"며 "5·18은 국가

의 공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유린한 사건으로, 광주 시민은 그에 굴하지 않고 희생 속에서도 맞섰고 이는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한 역사와 송고한 희생을 기리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며 "5·18이 광주를 넘어 전 국민의 자부심, 기념 대상으로 승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5·18 망언에 대한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했다. 박경린 전 광주 YWCA 사무총장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다"며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후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은 "우리는 괴물집단도 아니고, 세금을 축내고 있지 않다"며

중흥건설, 학생들 불모로 잡아  
민원 풀려고 학교 신축공사 미뤄 ▶6면

김여울 기자 KIA 오키나와 캠프 გადა  
월랜드 첫 피칭 1이닝 무실점 ▶20면

"대통령께서 2명의 위원을 (한국당에) 재추천 요청한 것은 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5·18 망언에 대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 등의 발언을 한 것을 예로 들며 "역사를 바로 세워준 데 대해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감사의 말을 전해왔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5·18 왜곡에 대한 처벌 법률 제정과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정치권 퇴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간담회는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대한 정부의 확고하고 일관된 의지를 전달하며, 5·18 단체 및 광주 시민의 민심을 경청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北 비핵화 전인 위해 남북경협 활용"

문대통령-트럼프 전화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8일 앞둔 지난 19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35분 동안 가진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완화가 이뤄질 경우 한국이 남북경협 등을 통해 부담을 나눠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미국에 한층 적극적으로 제재완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작년 6월 역사적 싱가포르 1차 회담의 합의를 기초로 ▲ 완전한 비핵화 ▲ 한반도 평화체제 ▲ 북미관계 발전을 구제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준비현황 및 미북한 협의 동향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회담 결과 공유와 후속 조치 등에서 계속해서 문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하노이 회담을 마치는 대로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의사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나, 우리 두 사람은 아주 잘해오고 있으며 한미관계도 어느 때보다 좋다"고 확인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HNT 하나투어**

**여행은 무안공항에서 시작하세요!**

광주일본 고객 예약자 대상 혜택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대 교환권 제공(성인기준)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동남아	일본/대만	중국
<p><b>다낭</b> 766,000원~ 다낭/호이안/후에 4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매일 운항 3박4일</p>	<p><b>오사카</b> 900,000원~ 오사카/고토/나라 4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월, 화, 목, 금, 토, 일요일 3박4일</p>	<p><b>상해</b> 329,000원~ 상해/항주/주자강 4일 5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p>
<p><b>세부</b> 530,000원~ 세부 5일 슬레어리조트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화, 수, 금, 토 3박 5일</p>	<p><b>기타큐슈</b> 580,000원~ 기타큐슈/유후인/벵부 4일 5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3,000엔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금, 일요일 2박4일 화요일 3박5일 ※3월 5일부터-</p>	<p><b>상해/장가계</b> 1,190,000원~ 상해/장가계/원가계 4일 5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4박 5일 토요일 4박 5일</p>
<p><b>코타키나발루</b> 699,000원~ 코타 5일, 6일 시내 준특급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3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 목요일 3박 5일 일요일 4박 6일</p>	<p><b>대만</b> 696,000원~ 대만/지우펀/야후 4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매일 운항 3박4일</p>	<p><b>오이타</b> 549,000원~ 오이타/유후인/벵부 3일, 4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화, 목요일 2박 3일 토요일 3박 4일</p>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일 변경 가능 있습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변동성,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자] 도착비자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합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특별여행 상품] 특별여행 상품은 유류할증료와 국제항공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사항은 이 선택사항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외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여행 자제/여행 취소 권고/여행 금지